

# “배우 봉태규·시인 김용택, 인문축제서 만난다”

6월 1~2일 중심사 일원에서  
‘인문토크’로 인문 감성 공유

배우 봉태규와 시인 김용택·김형수, 화가 한희원, 작가 이희영·안미란 등이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에 참여해 시민들과 인문적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광주 동구는 오는 6월 1~2일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For:rest>’에서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인문적 시선을 나누는 ‘인문토크’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인문토크는 축제 주무대 광장과 편백숲에서 진행되며, 광주를 대표하는 대중 예술인 배우 지정남이 사회자로 나선다. 배우 봉태규와 시인 김용택·김형수, 화가 한희원, 작가 이희영·안미란 등이 참여한

다. 축제 첫째 날인 1일에는 ‘자연의 말’을 시어로 담아내는 김용택 시인이 ‘자연이 하는 말’을 주제로 무등산 인문축제의 포문을 연다. ‘2024 동구 아카데미’ 강연으로 마련된 이번 토크는 무등산 인문축제를 맞아 특별히 축제 현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편백숲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한희원 작가가 ‘별을 사랑한 예술가’라는 주제로 화가 반고흐와 시인 윤동주의 창작 세계로 안내한다.

이어 둘째 날인 2일에는 영화배우 봉태규와 함께 마련한 토크가 준비돼 있다. 지난해 에세이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발간하고 최근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의 라디오 DJ를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봉태



광주 동구가 오는 6월 1~2일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원에서 ‘제2회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For:rest>’를 연다. 사진은 인문축제 포스터.

규는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형수 작가와 무등산과 깊은 인연을 가진 김남주 시인의

시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또한 동구가 ‘2024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그냥 씨의 동물 직업 상담소’의 안미란 작가와 ‘소금아이’의 저자 이희영 작가가 함께하는 자리도 열린다. 올해의 책 인문토크에 함께한 방문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작가의 친필사인이 들어있는 도서가 증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등산 인문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문도시 기획계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무등산 인문축제는 지식으로서의 인문이 아닌 실천하는 인문을 위한 성찰의 장이다”며 “6월 1~2일 이틀간 다양한 인문적 만남과 교류를 통해 나 자신을 찾고 이웃을 살피는 가치 있는 일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ob.song@jnilbo.com

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우수’  
서구,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

광주 서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식약처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 위생관리, 우수 사례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서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서구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 감시인력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업소 점검, 합동단속 참여, 소비자감시원 활동, 민원처리 등 수시 위생점검 및 행정지도를 확대 실시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 소규모 골목 식당 위생컨설팅, 유통수산물 방사능 오염도 수거검사 확대, 시기별 식품위생업소 특별점검, 식품안전관리 정책 홍보 등 적극적인 특수시책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강주비 기자

‘사운드 오브 로즈’ 음악회  
25일 풍암호수 장미원

장미가 만개한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특별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 서구는 오는 25일 오후 5시 풍암호수 장미원에서 ‘사운드 오브 로즈 (Sound of Rose)’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뮤지컬 ‘파리넬리’ 주연으로 유명한 파페라 가수 루이스초이의 특별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Play 가운’, 성악 ‘아띠클래식’, 전자바이올린 ‘리브어스앙상블’, 도심속문화예술축제 도시락(樂)팀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 연인, 가족 등이 즉석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로맨틱 프로포즈’, 선착순 100명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이날 장미원 일대에서 오방협동조합, ㈜하누리꽃담, ㈜아름다운상상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해 꽃무늬 받침 만들기, 장미를 활용한 프리저브드 만들기, 다양한 색을 이용한 네일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는행 후원으로 꽃차부스와 문인협회 주관 시화전도 개최된다.

강주비 기자

‘사회적경제 정기장터’ 운영  
광산구, 24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광주 광산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기장터인 ‘상생광산장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주제,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광산구만의 상생장터다.

24일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올해 상반기 첫 장터를 연다.

금속공예품, 라탄공예품, 풍선 등 13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커피박 열쇠고리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4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광주)와 함께 구매영수증 이벤트로 △3만원 이상 구매 시 보령 가방을 △5만원 이상 구매 시 접이식 우산, 김부각, 티세트 중 한 가지를 제공한다.

다음 장터는 6월7일, 6월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송암 호천 5·18 추모문화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송암 호천 5·18 희생영령 추모문화제가 22일 광주 남구 호천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민판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김양배 기자

## 한문철 변호사, 광주 복구에 ‘반광 의류’ 기탁

1430만원 상당 반광조끼 등 기증

광주 복구는 교통사고 전문 법률상담과 TV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로부터 1430만원 상당의 반광 의류를 기탁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복구가 기부받은 물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개발, 제작한 반광 조끼와 모자 130세트인 한문철 변호사 대리인(박종민)을 통해 전달됐다.

반광 의류는 작은 불빛만으로도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야간에 착용하게 되면 교통안전 확보에 효과적인 물품이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 복구서 ‘교통 안전 교육’을 진행, 노인비율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번 반광 의류 전달을 추진했다.



한문철 변호사 대리인 박종민씨가 광주 복구에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개발, 제작한 반광 조끼와 모자 130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 복구 제공

복구는 기탁받은 반광 의류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전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에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 광산구의회, 지방의회 역할 강화 모색

‘거버넌스 포럼’ 강연 열려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21일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과 거버넌스 포럼’이 자치분권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회 역할 정립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방분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 이희영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거버넌스의 기능 및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교육자료와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주된 내용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것으로, 거버넌스 모델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 수립에 대한 것이다.

조영민 거버넌스 포럼 대표의원은 “진정한 시민 주권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기초의회와 의원들이 거버넌스를 촉진하며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아동학대 우려 가정 선제 지원  
북구, 시범사업 선정

광주 북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적 개입 강화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을 조기에 지원하여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시범적으로 수행 자체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전국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북구는 아동 보호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아동과 가정에 학대 판단 전·후에 걸쳐 △신속지원 중심형 △양육코칭 지원형 △양육상황 점검형 등 3가지 유형의 아동학대 예방 서비스를 12월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1인당 도시숲 면적 조사 진행  
광산구, 열섬현상 방지 등

광주 광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민의 숲 이용환경을 살피는 ‘도시숲 등의 관리 지표 측정 및 평가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민 1인당 도시숲 면적을 9㎡로 권고하고 있다.

마을숲·가로수 등을 포함한 도시숲은 휴식처 기능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광산구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과 세부 지표·항목을 조사해 지역 도시숲에 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조사 대상은 광산구 도시숲 759만 6000㎡와 가로수 16개 전 수종이다.

김상철 기자